

晚栗公墓碑豎碣告由 奉行

만율공

묘비수갈고유

봉행

■ 권영하(본원 부총재·전례위원장)

지난 4월 15일 경북예천군 예천읍상동리 후산에서 만율공(諱 斗植) 부자분 묘비 수갈고유를 예천읍공 양향중, 문중, 후손 등 280여 명이 참석해 고유행사를 봉행했다.

공은 안동권씨 좌윤공파조의 35세손이며 諱 斗植 字 贊玉 호가 晚栗이며 고종14년 1877년에 율리 사제에서 나시어 1962년 86세로 추하였으며 묘소는 뒷산 권좌의 언덕에 있다.

가계를 살펴보면 좌윤공파로 17세 小派祖 휘 경(諱 軫)의 후예이니 軫은 고려조 생원으로 개명현감을 지내시나 조선이 개국되자 印綬를 풀러놓고 예천유문의 금곡으로 이거하니 이로부터 자손이 세거하게 되었다.

효행이 지극하여 효의정어가 내려졌다.

루전하여 26세 휘적(諱 迪)은 자가 계여(啓余) 또는 계경(啓卿)이고 호는 구곡(鳩谷)이니 인조4년 1620년에 나서 효종 때 생진병과에 입격하고 현종 때 문과급제하여 사간원 사간과 사헌부 직에 이르고 의직으로 충주목사 등 넷 고을을 다스렸다.

이리하여 목재 홍여하(洪汝河) 김경취(金仲諱)와 함께 영남삼사간이라 일컫음을 문집이 전한다.



만율공 휘두식 묘비수갈고유(예천읍상동리)

27세 휘 명유(諱 命裕)는 자가 여관이고 통덕랑으로 율리입향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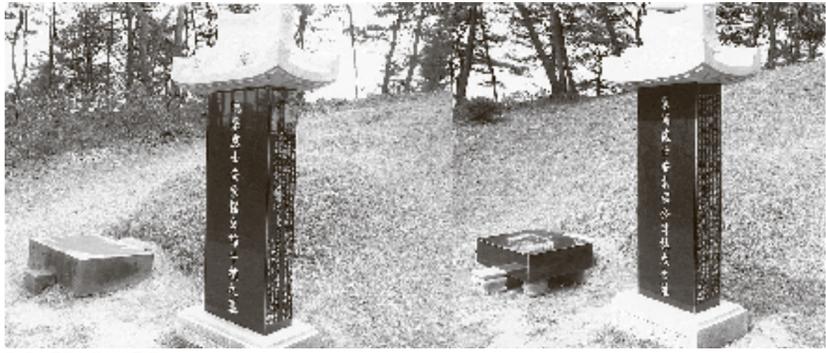
고조는 諱가 정표(井杓)이고 증조 諱는 성호(聖浩)이며 자는 맹연(孟然)이고 호를 차호(蘆胡)라 하니 정조 24년 1800년에 나서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1884년에 85세로 추하였다.

祖 諱는 형필(衡弼)이며 자가 상철(相七)이고 호가 율포(栗圃)이고 1833년에 나시어 효도가 지극하

였고 행의가 뛰어났으며 考 諱는 회수(會洙)이고 生文 諱 덕수(德洙)는 자가 윤원(潤源)이고 호가 현암(峴巖)이니 학행으로 유고가 있다.

공은 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품이 순후하였으며 선조의 유훈과 가학을 연원으로 위기지학을 연마하여 학식과 덕망이 향내에서 추앙을 받았다.

안으로는 사랑과 우애로 상봉하 술하니 집안이 화목하고 문중이 번광하였고 한편으로 근검과 절약을 근본으로 삼아서 성가(成家)하자



작: 만율공묘소 우윤은공 묘소

향리에서 공덕명 하였으니 흥년에는 갓간을 풀어 빈민을 구휼하였고 사랑에는 과객이 끊이지 않아도 친식술처럼 대접하고 갈때는 버선이라도 한 켤레 주어서 보았으니 모두가 살아있는 활인불(活人佛)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2남1녀를 두었으니 혁성, 혁산, 여 연안인 이의석이며 혁성은 자가 화녀이고 호가 율은(栗隱)이며 1913년에 나서 1993년에 81세로 추하였으며 겸산 홍차유의 문인으로 유고가 있다. 공의 손자 택문은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후에 성균관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30여년간 중등교사를 했으며 현 예천향교 전교이다.

근년에 택문이 필자와 상의하여 고 동에 권영조씨에게 묘갈명을 받아 비를 세우고 고유제를 올렸다.

그 때 문과록에는 상례 권우철, 초헌 권택문, 아헌 권택량, 종헌 권영태, 찬자 권영대, 축 권경장, 중탁, 도변 권우열, 시도 권경섭, 직 일 권영하 이고 향과록에는 상례 안중건 (前 전교 현 성균관전인), 초헌 권택문(손자), 아헌 조창섭(한양인 팔우 현, 조의양(중손, 중

헌 이경희(연안인 외손자), 찬자 안기식(前 유도회장)의 6인, 독고 유 정재삼(청주인청풍자 정윤목 후)씨 6인, 중탁 도변 이체우(경주인 삼희당 이정영 주손) 시도 한 중섭(청주인 서예가), 직일 권영기(예천 인초간 권문해 중손), 윤철재(파평인 죽호윤보중손), 권창용(안동인 춘우재 권진중손), 정경수(청주인 약포정탁 중손), 이윤환(성주인라암이문홍중손)

<부총재 전례위원장 권영하>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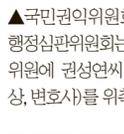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가장 먼저 연금저축상품을 비교분석해 『K-간수머리포트』처럼 내놓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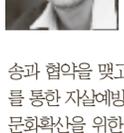
▲ 권영진 의원이 2012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미래를 여는 지도자 부문에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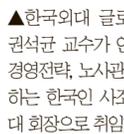
▲ 권영세 안동시장은 4일 오전 10시 40분에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열린 안동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행사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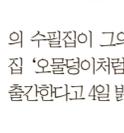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비상임위원에 권성연씨(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를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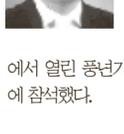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하규섭)는 2012년 한해 동안 CBS방송과 협약을 맺고 TV, 라디오를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TED형 강연회(14일)에 '내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법'이라는 주제로 권을미(PBS방송진행자)가 강연자로 참가했다.



▲한국외대 글로벌경영대학 권석균 교수가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노사관계 등을 연구하는 한국인 사조직학회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몽실 언니의 '강아지똥'을 쓴 아동문학가 권정생(1937-2007)의 수필집이 그의 5주기 추모집 '오물덩이처럼 당굴면서'로 출간한다고 4일 밝혔다.



▲권기봉 지사(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은 12일 풍산읍 만년저수지에서 열린 풍년기원제, 풍수식에 참석했다.

聖文 權五鶴 先生 墓碑 立石告由

성문 권오학 선생 묘비 입석고유

지난 4월 26일 경주시 내남면 만성리 산42 聖文 權五鶴 翁의 묘소에서 권혁재 경대법대원장의 대구, 경주, 울산, 포항, 창원, 안동 등 후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석고유제를 봉행했다.

이날 권혁재 경대법대원장의 증조부모(諱 道運 配 고령박씨)와 조모 月城金氏 3위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선고 오학공과 함께 묘비입석 고유제를 정석호씨의 축문으로 했으며, 권태을 경북대 명예교수가 찬했다.

권오학, 정복출 여사는 슬하에 6남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현재)는 경북대법대학원장, 차남(현재) 북원대부총장, 3남(현재) 공군대령 4남(현재) 기아자동차 이사, 5남(현재) 사업가 6남(현재) 현대중공업부장에 있다.

오학공은 생애 70년을 바쳐 충효가의 후예로 명분을 온전히 지켜 뿌리 가람이 곧 뿌리내림이란 이치를 깨우친 20세기의 선사(善士)였다.



성문 권오학옹 묘비

권오학, 정복출 여사는 슬하에 6남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현재)는 경북대법대학원장, 차남(현재) 북원대부총장, 3남(현재) 공군대령 4남(현재) 기아자동차 이사, 5남(현재) 사업가 6남(현재) 현대중공업부장에 있다.

오학공은 생애 70년을 바쳐 충효가의 후예로 명분을 온전히 지켜 뿌리 가람이 곧 뿌리내림이란 이치를 깨우친 20세기의 선사(善士)였다.

<권혁세 기자>

대사성공(諱 儆)수도종친회 제9차 정공

휘 중

대사성공(諱 儆)수도(서울, 경기)종친회(회장 권순호)는 지난 4월 21일 12시, 서울 강동구 마니사 웨딩홀 뷔페에서 종친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승용 총무의 사회로 시조 대사공 묘소 및 파조단소에 대한 당배, 권순호 회장의 인사, 권명준 대사성공종친회장의 축사, 총무의 경과보고, 권영익 감사의 감사보고, 결산보고는 의결하였으며, 권순호 회장이 사임을 표해, 회장에 권오실 씨를 선출하였다.

권순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권명준회장을 비롯해 수도종친 여러분들과 멀리 강릉에서 온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종친회는 창립한지 9년차가 되었으며 특별히 권성동 국회의원 당선은 여러종친들의 덕분이며 우리 종친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권의원이 국사를 잘 수행하도록 도울 것



대사성공수도종친회에서 신임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오실 회장

이머 저도 앞으로 종친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명준대사성공종친회장은 "강릉에 여러 종친회가 있으나 이렇게 따로 종친회를 갖는 경우는 유일하며 이렇게 서로 화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였다.

이어 권오실 신임회장은 권순호 회장이 장기간 종친회를 위해서 애쓰셨으며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 종친회를 선조님들의 숭조예전을 바탕으로 종친간에 상부상조하는 좋은

권영익 부정공파 안동돈목회장

선조유적지 탐방

부정공파 안동돈목회(회장 권영익)는 지난 4월 25일 오전 8시 파죽 120여명이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관광차편으로 문경시 산북면 서종리에 있는 근암서원을 탐방해 주, 과, 포를 진설하고 함께 참배했으며, 이어 월악산을 등산하고 총북단양 도담삼봉 등을 견학하면서 선조님의 유력을 기렸다.

<권혁세 기자>

종친회로 만들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임원 개선에서는 △회장:權五實 △부회장:權赫基, 純鈞 △감사:權寧常이 선출되었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폐회했다.

<권승용 총무>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외동포 기업인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2012. 4. 30평창(강원)유영호 기자 인용)

식품가공공장 준공식

회사법인 권승혁 사장

회사법인 (주)생생초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 식품가공 공장을 준공하고 지난 3일 오전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공장 준공식에는 (주)생생초 권승혁(좌윤공파 36世 前 경주정장년회장)대표이사와 임직원, 이종근 청도군수, 지역기관장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생생초 식품가공공장은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5천35㎡, 가공시설 1천 317㎡, 기계장비 46종의 규모로 연간 1천t의 생산량과 약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생생초는 준공식 축하화환 대신 사랑의 쌀로 구

성된 쌀드림리화환을 받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생생초는 준공식 초청장에 "축하화환 대신 쌀드림리화환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날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 사랑의 쌀을 나누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드림리 안내문과 안내장을 넣어 보냈다.

(주)생생초 권승혁 대표이사는 준공식 축하 쌀드림리 화환의 쌀 1,12t을 5월 8일 청도군청에 기부했다. (주)생생초 공장 준공식 축하쌀드림리 화환을 진행한 드림리는 청도에서 생산된 갖도정농 쌀로 전달하기로 했다.

<편>



권병하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한국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

권병하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윅타) 회장(62)은 지난 2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순 협력사에 미루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라며 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축적된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던 시절 해외에 나가 온갖 고생 끝에 성공한 재외교포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월드윅타 16대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지난 1982년 35세의 나이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1600달러를 밑천으로 연매출 1억 5000만달러 규모의 중전기 회사 '헤니콜 코퍼레이션'을 일궈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나 웨스팅하우스, 독일 지멘스 등과 경쟁하면서 세계 4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150만달러를 출연, '헤니권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06년 외국인 최초로 말레이시아 국왕으로부터 다토(백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권 회장은 월드윅타 창립 후 지난 31년간 회원 수가 61개국 650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국내 6대 경제단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 단기 목표"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후진 양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차세대 무역역사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줘 한민족 경제사관생도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경제인들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로 이 네트워트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FTA(자유무역협정)에

교양만평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승룡(민토 소장)